

공모주 열기에 '스팩'도 활활... 최고 경쟁률 236대 1

올 청약스팩 평균 경쟁률 99.9 대 1 초기 평균 수익률 7.37% '호조세' 美 시장 따라 국내 상장 증가예고 합병 이후 변동성 확대 주의해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향한 투자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스�팩이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며 국내에서도 기업공개(IPO) 투자의 대안으로 삼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직접 증시에 상장하는 공모주를 사려면 수천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스�팩은 신규 상장사의 주식을 비교적 쉽게 살 수 있다.

스팩은 실제 사업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발행주식을 공모한 뒤 그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IPO 열풍에 스�팩에도 물러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모청약 일정을 진행한 스�팩 9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9.91대 1로 집계됐다. 100대 1을 넘기는 곳이 잇따라 터져

〈연도별 스�팩 상장, 합병 건수 추이〉

연도	스팩상장 건수	스팩합병 건수
2015	44	13
2016	12	9
2017	202	20
2018	20	9
2019	30	9
2020	18	13
2021	9	3

*올해는 4월까지 기준. 합병 건수는 합병 상장일 기준. /한국거래소

나오는 중이다. 유진스팩6호가 236.2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하나금융스팩17호(168.68대 1), 하나머스트스팩7호(237.46대 1), IBKS스팩15호(101.73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스�팩 18곳의 평균 경쟁률이 3.14대 1을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 그간 스�팩은 일반 공모주와 달리 청약 경쟁률 5대 1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통념은 이제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예년과 다른 특이점을 보이는 건 경쟁률뿐만이 아니다. 이전과 달리 상장

초기 수익률도 호조세다. 올해 상장한 신규 스�팩 8개의 평균 수익률은 7.37%를 기록했다. 스�팩은 합병 이슈가 없는 한 공모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데다 거래량도 많지 않다. 통상 합병 대상을 찾기 전까진 기대 수익률이 0%에 수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성과다.

스팩의 가장 큰 매력요인으로는 투자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꼽힌다. 국내 스�팩은 공모 자금의 90% 이상은 은행 또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해당 예치금에 대해 약간의 이자를 지급한다. 한국은 기준을 2년으로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3년 안에 스�팩 상장 후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연 1.5~2% 안팎)를 돌려준다.

◆미국 따라 스�팩 상장 늘어난다

스팩을 통한 상장 기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 시선이 우세하다. 미국 시장 처럼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전통적 IPO보다 더 빠른 자금조달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스�팩 시장에 시선을 돌릴 것이라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 미국 시장에서는 총 300차례의 스�팩 IPO가 진행되면

서 934억달러가 조달됐다. 지난해 전체 기간 합산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에서 스�팩이 열기를 보인다"며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지만 주식시장이 활황이고 상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많다는 점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스�팩을 통한 상장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스�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참여한 발기인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스�팩을 고르는 방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기인 중 합병 이력이 화려한 업체가 있다면 스�팩의 신뢰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합병 건수가 많고, 수익률이 높은 발기인이 대상이다.

발기인들은 공모가 절반인 1000원에 가격이 매겨진 보통주와 전환청구권 행사가격이 1000원인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합병 계획 꼼꼼하게 따져야"

스팩을 통한 비상장사 합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합병상장 발표 전까

지는 합병 대상 기업도, 합병 시기도 알 수 없다. 합병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역시 위험 요인이다. 그동안 국내 스�팩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이러나 '품질주'로 분류돼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스�팩주는 특성상 자본금이 작고 상장주식 수가 적어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널뛰 수 있다. 약간의 수급변화에도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 계획을 꼼꼼히 살펴 투자해야 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로 과열 우려가 나오는 미국 스�팩 시장과 달리 국내 스�팩 시장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춰 투자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팩의 합병 성공률도 51%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짜을 만나지 못하는 스�팩도 절반이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며 "우량한 비상장기업과 합병이 결정되면 좋겠지만 합병 결정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타이거 리츠 ETF' 2종, 순자산 1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경기회복 기대감에 우수성과 기록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리츠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미국MSCI리츠 ETF'와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의 순자산이 각각 1000억원을 돌파했다.

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준 TIGER 미국MSCI 리츠 ETF 순자산은 1051억원,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 순자산은 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각각 437억원, 427억원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회사 측은 투자자금에 유입된 이유로 안정적인 성과와 꾸준한 배당을 꼽았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리츠 시장이 개선되며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연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TIGER 미국MSCI리츠 ETF는 16.4%, TIGER 부



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13.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 9.6%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수익률 11.3%을 웃도는 수치다.

꾸준한 배당 또한 리츠 ETF의 장점으로 꼽힌다. 작년 한해 동안 TIGER 미국MSCI리츠ETF와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각각 3.3%, 5.4%씩 분배했다. 2020년 코스피 보통주 시가배당률 2.3%, 우선주 시가배당률 2.6%보다 높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

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연간 배당수익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TIGER 미국MSCI리츠 ETF는 미국 리츠 시장 3분의 2를 포함하는 'MSCI USREIT Index'를 추종한다. 지수는 물류, 데이터센터, 쇼핑몰,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136개 리츠로 구성돼 있다.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ETF는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국내 리츠와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한다. 지난 3월말 기준 6개 리츠에 60%, 고배당주에 40% 투자하고 있다. 향후 국내 리츠 상품이 다양해지면 리츠 투자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팀 부장은 "리츠 관련 ETF 투자는 거래편의성, 저렴한 보수 등 ETF 장점을 누리며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송태화 기자

현장 최적화 분자진단 플랫폼 주목

IPO 간담회

진시스템

PCR기술로 30분만에 검사 美·中 등 세계 곳곳에 진출 플랫폼 장비 라인업 고도화

분자진단 플랫폼 신기술로 주목받는 진시스템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상장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플랫폼 설치 지역을 넓혀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진시스템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 일정과 향후 전략에 대해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이사는 "인구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헬스케어와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자진단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시스템은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플랫폼은 진단장비와 바이오칩 기반 진단키트를 통칭하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분자진단과 면역진단의 장점만을 융합해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분자진단 플랫폼 관련 원천 기술이 가장 큰 강점이다. 정밀 하드웨어, 하이 멀티플렉스,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했다. 진시스템의 신속 유전자증폭(PCR) 기술은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의 PCR 기술과 달리 초고속 온도 제어를 통해 얇은 형태의 판형 히트블록 채택으로 열전달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길었던 반응 시간을 90분에서 3분의 1 수준인 30분까지 줄였고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업계 평균 4000만원에 달했던 가격도 1000만원까지 낮춰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회사는 핵심기술 상용화를 통해 2016년부터 일본, 미국, 인도, 중국, 유럽, 중동 등 세계 곳곳에 진출하며 플랫폼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2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진시스템은 상장 후 플랫폼 장비의 라인업을 고도화하고 설치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초고속 윈스텝 실시간 진단 타깃 검출이 가능한(UF-400)를 2022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진단 시장 잠재력이 큰 타깃 질환별 신규 콘텐츠를 상용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인체 진단 중심에서 식품검사, 반려동물 시장까지 넓혀나갈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 수는 142만5000주다. 공모예정가는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최대 공모금액은 285억원이다.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오는 13~14일 청약을 거쳐 상반기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맡았다. /송태화 기자

신한금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홈페이지, HTS에서 신청 가능하다. /백미경 기자

금융투자협회, 2021 신입직원 공개 채용

일반, IT, 변호사, 회계사 4개 부문 면접 등 거쳐 7월중 합격자 발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21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부부는 일반(경영·경제·법학), IT, 변호사, 회계사 등 4개 부문이다.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NCS 포

함), 전공시험(경영학·경제학·법학·IT 중 택1) 및 논술시험으로 예정돼 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부문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만 실시한다.

한편 금투협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고사장 소독,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계획 마련 등 엄격한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미경 기자 mikyung96@